

中世와 現代의 邂逅, 벨기에 루뱅大學

鄭 雲 暎

(韓神大 經濟學科)

루뱅의 당나귀가 로마의 신학박사보다 유식하다는 얘기는 로마에서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필자에게 전해 준 말이다. 로마의 신학박사들이여 이 작은 농담에 크게 노여워 마시라! 서구문명의 '한 때'를 카톨릭교회가 지배한 적이 있으며, 그 카톨릭교회의 신학에 루뱅대학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그 한 때에 루뱅대학의 위세란 대단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정식 이름은 루뱅 카톨릭대학교(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이다. 호적상으로는 아직도 카톨릭교회에 속해 있으나, 대학 예산의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좀 각박하게 표현하자면, 재정적으로만은 국립이라고 해도 좋다. 과거로부터의 인연 때문에 이사장은 아직도 대학이 속한 카톨릭 교구의 교구장인 주교나 추기경이 겸임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에는 이사장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 해에 한두 번 학교 행사에 '초대받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느껴졌다. 총장의 선임에 있어서조차 교무위원회의 후보자 제청을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기기에 무슨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 여부를 따질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국가의 예산을 쓰는 곳이기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학의 운영은 완벽하다고 할 만큼 자유롭다. 도대체 국가가 대학의 행정에 간여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체를 생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 문일까?

루뱅이란 이름은 9세기말 이곳에 침입했던 노르망(Norman)이 로봉(Lovon)으로 표기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도시의 건설은 출토된 유물이나 유적으로 보아 대체로 70년부터 25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루뱅에는 이미 12세기초에 수도원학교 형태로 교육기관이 존재했으며, 대학은 1425년 당시의 교황 마르탱 5세(Martin V)의 교서에 의해 루뱅대학교(Universitas Lovaniensis)라는 이름으로 개교되었다. 처음에는 법학을 비롯한 네 학부로 시작되었으며, 신학부는 오히려 가장 늦게 1434년에야 설치되었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개교 후 400여년이 지난 1834년에 학생의 수가 86명이었다니까, 개교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지만, 여하튼 560여년의 역사라면 세계 最古의 대학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으리라. 또 개교 이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대학과 관련이 있는 도시의 모든 민사적 그리고 사법적인 권한까지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되었다는데, 요즈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켈조의 출발을 했던 것 같다. 더구나 지금도 교수단, 학생수, 예산액 등으로 평가한 대학의 규모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학으로서는 세계에서 첫번째이다. 이것은 벨기에란 나라의 규모를 생각하면 분명



▲ 루뱅대학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인 대학임을 크게 자랑한다

히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국가가 안고 있는 영광과 오욕을 대학이 그대로 체험하는 일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벨기에는 제 국토의 90 배가 넘는 콩고와 자이레를 식민지로 삼아 수탈해 온 '영광스런' 추억을 지니고 있으나, 유럽의 역사에서는 매리기보다는 얻어맞은 회수가 더 많은 작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남한의 1/3 에도 못 미치는 작은 땅 덩어리에 나토 본부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본부를 유치하는 약삭빠름도 보여 주고 있다. 자동차는 만들지 않지만 기관차는 수출하고, 때로는 주식이란 수 있는 감자조차 수입해다 먹지만 정보요원이나 갱단에서 쓰는 총기가 '메이드 인 벨지움'이란 기사거리를 신문에 제공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인공 토틸과 미틸이 벌이는 「파랑새」의 꿈을 가슴 조이며 읽었지만, 그 저자인 모리스 메테를링크가 벨기에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네덜란드 하면 풍차라고 조건반사적으로 복창할 만한 대외적인 상징이 없으면서도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유럽공동체 와해의 위기도 아니고, 기관차 수출의 애로에서 오는 경제적 불황도 아니다. 오히려 상이한 두 언어가 가져오는 두 민족간의 갈등 내

지는 분열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의 싹이 되고 있다. 대체로 19세기까지는 프랑스어를 쓰는 왈롱(Wallon)민족이 모든 면에서 국가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그때에 네덜란드말의 사촌쯤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플라망(Flamand) 민족은 열심히 애를 넣고 돈을 벌었다. 그것을 그들의 피지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던 모양이다. 사람과 돈에 자신이 섰을 때, 이 플라망족이 지금까지 공식문서를 비롯해서 문화 활동 전반에 걸쳐 독점적 지위를 누려 온 프랑스어에 대해 영토 분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실제로 이 나라에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문교부가 있으며, 그 장관 역시 서로 다른 사람이다. 여담이지만 우리에게 통용되는 벨기에(België)라는 국명—프랑스어로는 벨지크(Belgique)가 된다—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플라망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 것이다. 여하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후 1970년의 법률에 의해서, 수도인 브뤼셀을 경계로 대체로 그 이북에서는 플라망어를 그리고 그 이남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쉽게 풀이하자면 언어에 의한 국토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해 왔고 또 그 쪽 사람들에 의해 그 주도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어 온 루뱅대학이 바로 경계선 이북에, 다시 말해서 플라망어권에 속했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기교 이후 400여 년 동안은 대학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으며, 16세기에는 인문주의와 에라스무스 등의 영향으로 그리스어와 헤브라이어도 강의하는 기관이 나타났다. 1890년 법학대학에서 플라망어로의 강의를 최초로 개설되기는 했으나, 모든 강의를 두 개의 언어로 진행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여하튼 프랑스어로의 강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의 선택에서 루뱅대학은 후자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의 루뱅대학 자리에는 플라망어를 사용하는 뢰벤(Leuven)—이것은 루뱅의 플라망식 표기이다—대학이 차지하고, 루뱅대학은 거기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계선의 바로 남쪽의 루뱅 라 뇌브(Louvain la Neuve: 새 루뱅이란 뜻이다)에 새로운 도움(?)을 건설해야 했다. 루뱅대학을 플라망어로 표기하면 뢰벤대학이 되고, 뢰벤대학을 프랑스어로 표기하면 루뱅대학이 되며, 더구나 그것들을 영어로 표기하면 철자까지도 꼭 같게 되는 이 두 대학이 별거—아니 이제는 완전히 이혼이다—하게 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의 예로서 대학을 분리할 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누는 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 되었지만, 의사표시가 가능하지 않은, 말하자면 중세기 이후 간직되어 온 필사본의 희귀 자료같은 것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온갖 기발한 지혜들이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972년에 시작된 10개년 계획의 遷都는 최신의 건축 기술과 여러 가지 독창적인 생각들에 힘입어 광활한 벌판에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그 계획을 마무리지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수백 년 동안 푸릇푸릇하게 이끼를 키워 낸 벽돌과 석유리 창틀 위에 아직도 중세의 고풍을 고요하게 간직하고 있는 뢰벤이 철근과 시멘트로 단장된 루뱅 라 뇌브보다 ‘더 인간적’이었음을 고백한다. 뢰벤과 마찬가지로 루뱅 라 뇌브 역시 도시에 세워진 대학이라기보다는 대학이 건설한 도시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 교수의 연구실 앞에 학생들의 카페가 차려지고, 대학 광장에 일주일에 한번씩 시끌벅적한 정기

시장이 서는가 하면, 근엄한 도서관과 남녀가 뽀뽀하는 사진을 즐비하게 붙여 놓은 영화관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말하자면 철조망으로 울타리 두르고 정문에서 경비가 길을 막는 따위의 상황은 적어도 이곳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대학의 학부과정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열 개의 전공 분야(faculté)로 구성되는데, 의학과 약학이 같은 단과대학에 속하고 또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수여하는 몇 안 되는 명예박사 중에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나 화가 마르크 샤갈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대학이 그 방면에 아주 무지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교육 연한은 그야말로 자유로운데, 법학대학의 5년 그리고 의학대학의 7년이 좀 특이하고, 대체로 4년 내지 5년이 주류를 이룬다.

대체로 입학 후의 2년간은 기초과정(candidature: 단어 그대로의 뜻은 후보자가 된다)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과정(premier cycle)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교양과정이라는 개념과는 아주 달라서 그 나라의 국어, 국사, 혹은 국민윤리 등이 여기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후일의 전공 학문에 필요한 준비과목을 교양—이런 용어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실상은 이 과정을 전공 학문의 기초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국사, 체육 등이 요란하게—1960년대초에 우리나라의 학기당 수강과목은 대체로 11내지 12과목이었음을 상기해 보자—나열된 필자의 성적표를 보고, 그 대학의 입학 사무를 담당하는 교수가 당신이 다닌 학교가 정말 ‘유니버시티’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질문하던 생각이 난다. 대학에서 국어와 국사를 ‘다시 배우고’ 체육으로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발상이 그 쪽의 감각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다음으로 2년내지 3년의 전공과정(licence)이 우리의 학사에 해당하는 제2과정(deuxième cycle)이다. 그 이후의 석사과정(maîtrise) 및 박사과정(doctorat)을 제3과정(troisième cycle)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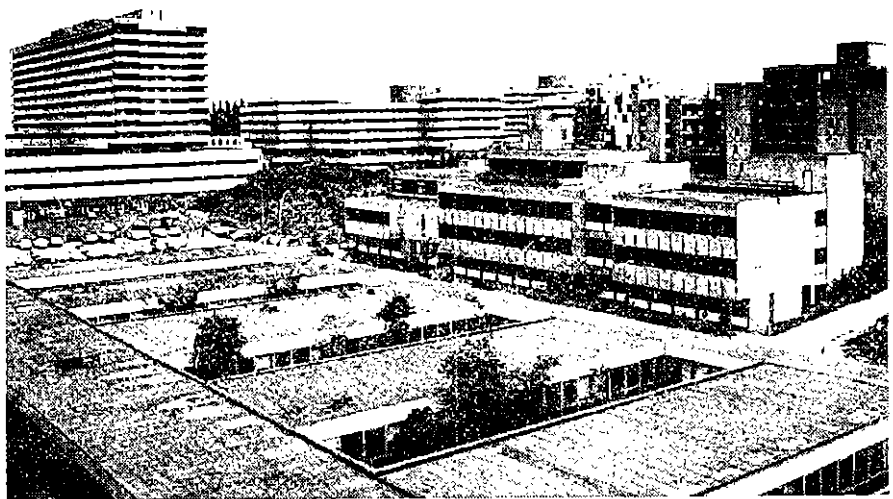
유럽의 학제에는 석사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루뱅대학에도 대외 접촉이 활발

한(?) 경제학이나 경영학 쪽에는 이 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고답적인 철학이나 문학 쪽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박사과정에서는 미국에서 실시된다는 강의(course work)가 세미나 등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눈 앞의 구속감은 덜한 편이나, 논문을 써도 좋다는 '하명'을 받거나, 논문을 내도 좋으냐는 상소에 嘉納의 '윤취'가 있기까지에는 술한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차하면 신선 늙음에 썩는 도끼 자루의 신세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한 강의과정을 마치면 큰 무리 없이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허용받는 미국식 제도를 등경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가장 촉망되는 길은 조교—이것은 우리의 사무조교나 혹은, 좀 가혹하게 표현해서, 교수의 수행비서나 간혹 들려오는 논문대필 비서의 기능과는 사뭇 다르다—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2년의 임기에 세 번의 연임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 6년이 대체로 논문을 쓰는 적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은데, 이 기간에 학위를 마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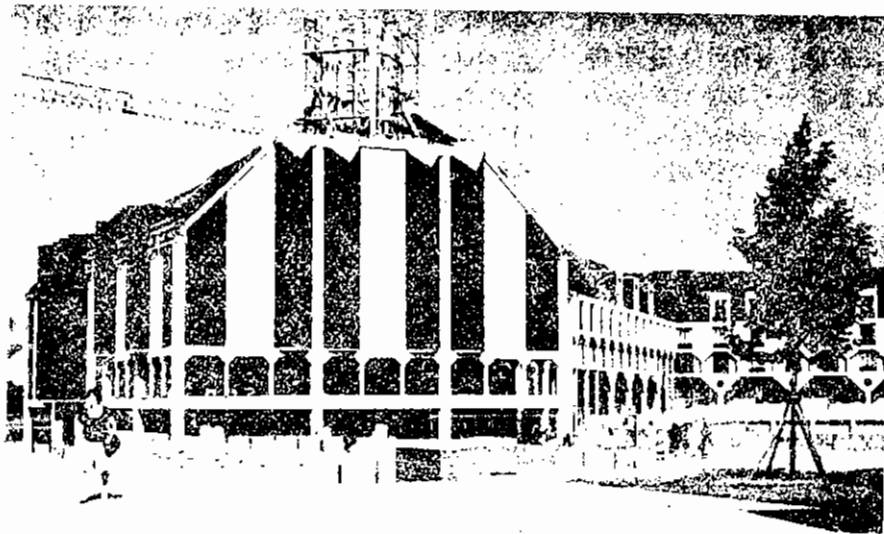
대학의 분위기는 아주 양면적이다. 하느님 오늘의 이 강의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도록 도와 주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숨막힐 정도로 엄숙한 강의가 있는가 하면, 슬리퍼 끌고 들어와 담배 반 갑—그 나라의 담배는 한 갑에 25개피가 들어 있다—정도를 가볍게 소모하는, 말하자면

실제의 강의시간보다는 휴연시간이 더 긴 강의도 있다. 칠레에서의 아옌데 정부가 무너지고 거기서 활동하던 '투사'들이 피난처와 공부방을 같이 찾아서 이 대학에 몰려왔을 때, 대학이 그들에게 '보통 이상의' 대접을 한 것은 이 대학이 표방하는 카톨릭시즘의 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좋을는지 모른다. 경우는 다르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귀국해서 한국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유학생을 공부시켰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이 기금은 그 후 제3세계 협력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확대 개편되어 대학의 공식기구에서 관장하는데, 지금은 대학 자체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 있다. 그것은 결국 가난한 나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몇 푼 주고 나중에 크게 덕 보려는 노획한 제국주의적 야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비판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도 작은 나라가 살아가는 지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유럽공동체 가맹국의 학생이나 벨기에 정부에서 '제3세계'로 인정된 국가의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1980년대초에도 연 2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더구나 벨기에의 학생이나 벨기에와 문화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으로서 공부할 능력은 있으나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루뱅 라 뇌브는 도시에 세워진 대학이라기보다는 대학이 건설한 도시이다 ▶



◀ 대학광장은
학문적 분위기와
낭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화
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교육비는 물론 생활비—가족이 있을 때에는 가족의 생활비도 포함해서—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돈 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은 없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지닌 강점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대학에 등록금을 낼 돈만을 가지고 여기에 오면, 공부는 무료로 하고 충분히 편안한 생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몰려온다.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아주 심해서 등록금의 차별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나 강의에서는 완벽하거나 적어도 완벽에 가까운 자유가 보장된다. 교수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그의 서명이 상당한 고위층의 부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장학금 신청서 같은 데에 교수의 서명이 추가되면, 그 내용이나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문교부의 관리들이 이의를 달지 않는다. 대학의 공식적인 기구 이외에 교수단, 강의를 담당하지는 않으나—혹은 미래의 강의에 대비하면서—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 그리고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각각 노동조합이나 그에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대학의 운영에 고루 기여하고 있다. 더구나 총장을 지명하는 교무위원회(conseil académique)는 단과대학의 학장들을 포함하는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 최고의 학사운영 기관인데, 여기

에 세 명의 학생대표가 참여한다. 카톨릭교회와 풍기는 권위의식이나 560여 년의 역사가 지니는 보수적인 전통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때, 이러한 대학의 운영 방식은 가히 하나의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학문의 내용에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강조하면서도, 한 수도자 교수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피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을 때, 대학은 그가 자신의 소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떠나라는 위협성 통고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산아제한의 가장 열렬한 반대자까지도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의 조치—아마 카톨릭교회의 조치란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만—에 항의하고 데모에 나섰지만, 결국은 그 강의가 일단 금지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역시 말과 주먹은 서로 따로 노는 것이며, 더구나 교리에 저항한다는 것이 이론과 설득의 문제가 아님을 स्पष्ट하게 확인한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건물을 카톨릭교회에는 별로 유쾌한 기억이 될 수 없는 토마스 모어, 몽테스키외의 그리고 에라스무스 등의 이름으로 헌정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도 옛날의 사소한—그 당시야 사소했을 리가 없지만—양심을 오늘날까지 연장하지 않거나 또는 한때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려는 신사다운 노력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대학이 유명하다는 지표가 무엇인지 일의적으

로 규정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노벨상 수상자 서너 명을 ‘모시고’ 있다거나, 웬만큼 만족할 만한 도서 시설을 갖춘다거나, 세계의 학계에 내놓을 만한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목전의 수지타산을 초월해서 교육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등속의 사실을 지칭한다면, 루뱅 대학은 이러한 기준에는 일단 합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모인 대학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대학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크게 자랑한다. 예컨대 1982년에 등록한 18,000여 명의 학생 중에 약 20 퍼센트 정도가 세계의 118개 국가에서 모인 외국인이었다. 1970년대말에 대학의 고위 당국자가 ‘세계의 대학’인 이 루뱅 대학에 증공의 학생이 없음을 한탄하고, 증공을 손수 방문해서 장학금을 주고 학생 20 명을 ‘수입한’ 것은 유명한 일화에 속한다. 루뱅 대학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 학생들에게는 메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대학이 지니는 개방적 성격에 더해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의 유사성이 주는 편안함과 카톨릭 정신이라는 공통적인 기반이 가져오는 익숙함 같은 데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강학생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일 경우에는 강의를 스페인어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수다스런 느낌을 주는 그 쪽 말의 억양과 그들의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에 강의실이 무척 시끄러워진다. 이러저러한 연유로 외국 학생들이 최소가치에 의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좀 짜증스런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구의 대학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루뱅 대학에도 입학은 아주 쉽고 졸업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베푸는 동등한 학력(équivalence)의 판정은 아주 인색해서, 예를 들어 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수료했는데도 대학의 3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벨기에 학생에게는 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시험(examen de maturité)의 합격증서에 해당하는 대학교육 적성 자격증만 있으면 어느 대학이고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입학 후에 낙제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대학의 전

과정은 우리의 입학시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강의(candidature의 약칭)라고 불리는 대학 기초과정에서의 경쟁은 아주 치열해서 1 학년에서 낙제를 모면하면, 즉 2 학년 진급에 성공하면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하기도 한다.

대학에서의 시험은 대학 생활의 건부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상당 부분까지도 지배하는 필요악—학생들의 대다수는 ‘불필요악’이라고 생각하지만—이기에 이것을 이기는 지혜가 아주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예컨대 한 학년의 강의를 2 년으로 나누어 수강신청을 하거나 혹은 내년의 강의를 올해 미리 들어서 내년의 시험에 대비하는 방안들이 있다. 필자의 동료 하나가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이 난 어느 상급학년 강의를 수강신청도 안 한 채 미리 들어 놓고, 시험 때 그 교수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후에 올해의 시험—물론 학척상 비공식적인 시험이다—에 합격하면 내년에 그 점수를 그대로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책이 널리 알려진 그 경제학 교수(Louis Philips)는 빙그레 웃으면서, “물론이지 자네의 점수를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고대로 돌려주겠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중세기적인 전통이 남아서인지 아직도 구두시험이 주류를 이룬다. 시험시간은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배당되는데, 예를 들어 완전히 맞지 않으면 전부 틀려 버리는 수학문제 같은 것을 이 시간 안에 풀어 내려면, 심장의 박동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제 귀로 확인하게 된다. 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교수와 단독으로 대좌하여 교수가 묻는 질문에 즉석에서 답을 하는 것인데, 언어 구사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학생에게는 가장 고단한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시험에 앞서 문제를 내주고 앞 차례의 학생이 시험을 치는 동안에 답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혹은 교수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각 장에 하나씩 따로 써서 접어 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제비뽑기에는 희비가 교차한다. 널려 있는 판은 찬란한데 뒤집어서 나오는 패가 시원치 않아 헛손질하는 화투판처럼, 제법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도 제 스

스로 뽑은 제비가 기대와 어긋날 경우에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필이면 그 문제를 골라 낸 '요망한 손'을 탓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성적은 20 점이 만점인데, 14 점 이상이면 소위 우등급(distinction)으로 이것은 대학원 진학이나 학위시험에 필요조건이 된다. 어떤 해에는 우등급을 얻은 학생이 아주 적어서 대학원 강의가 구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제를 면하는 10 점을 만족급(satisfaction)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좋은 답변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교수와 악수까지 나누어 내심으로는 의기충천(?)했는데, 후일 성적표를 받아 보면 이 落第 선상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가 있으면 유급이 된다. 한 과목에 두 번의 시험 기회가 주어지고 한 학년에서 한번의 낙제가 허용이 되는데, 각 학년마다 한번씩 실패를 해서 8년만에 졸업하는 경우를 본 일이 있다.

학사는 두 학기제로 운영되는데, 9월 세째 월 요일에 개학을 해서 대체로 5월말이면 강의가 끝난다. 시험은 매학기에 한 달 가량 계속되는데, 시험기간중에는 학생 못지 않게 교수도 기진맥진한다. 예컨대 200명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의 경우에 한 학생에게 15분을 배당한다면, 하루에 5시간씩만 시험을 치르더라도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면점을 통한 구두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야말로 '자유롭던' 학생들의 복장이 시험 때에는 정장으로 바뀌고 머리에 빗이 가기 때문에 시험기간중에는 학내 분위기가, 아

니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 보인다.

세계의 120 여 국가에서 모여들었고 또 무국적자와 정치적 망명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소위 유엔국적자—예를 들어 1982년에 이들의 수효가 61명이나 되었다—까지 한 몫을 거드는 이 세계의 대학에서, 그 구성원들 각자가 지닌 정치적 견해나 문화적 인식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지는 상상을 불허한다. 소련의 탱크 아래 프라하의 봄이 저버렸을 때는 대학의 모두가 쫓기렸으며, 지난 봄 축제에서 같이 마신 눈매 시원한 친구가 충을 들고 아마존의 밀림에 혁명을 심다가 죽어 갔다는 슬픈 소식에 접할 때는 모두가 같이 울어 준다.

밤을 사랑하는 라틴 민족의 습성에 따라 자정이 지나면 조금씩 피로한 눈과 조금씩 출출한 배를 가지고 유럽에서 대지의 면적이 가장 넓다는 카베(Cabay) 책방의 모퉁이를 돌아서 대학 광장(grand-place)에 널려 있는 카페로 하나씩 들썩 모여든다. 한 잔의 커피, 한 조각의 피자파이 혹은 한 컵의 맥주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즐겁다. 그들의 화제는 사막에서 사랑을 노래한 오마르 카이얌의 시에서 시작해, 체 게바라가 밀림의 별 빛을 통해 틈틈이 적어 놓았던 '볼리비아 일기'를 거쳐서, 그리고 자연과학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논증하려는 뉴턴의 난해한 「프린시피아(Principia)」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심심할 수가 없다. 또 거기에 각자 제 나라에서 갖고 닦은 숨은 재주들을 펼쳐 놓을 때, 그 자유롭고 싱싱한 청춘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